

북한 사회 힘쓰는 '대중 운동' 열풍

권경복 / 연합뉴스 남북관계부 기자

21 세기의 서막을 연 북한 반세기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할 때 어떤 표현이 적당할까.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대중 운동의 역사'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북한 반세기의 노정은 온갖 대중 운동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세기 북한의 역사와 대중 운동은 왜 궤를 같이 해왔는가라는 물음이 자연스레 생기게 마련이다. 그것은 시대적 배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오면서 주민들을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문으로 동원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달리 보면 이는 생산 수단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동원할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적 속성과도 연결된다.

특히 20세기 마지막 해인 1999년부터는 김일성의 사망과 더불어 총체적 난국에 빠졌던 북한 사회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자 지금까지 퇴색됐던 일련의 대중 운동을 종합,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 운동은 북한이 1998년 최고 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를 계기로 본격 전개하고 있는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인민 경제 모든 분야에서의 생산 정상화와 주민 생

활 안정 및 향상 등 경제난 극복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는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북한이 각종 대중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이들의 모범 사례로서 각 분야의 '영웅' 모델을 제시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영웅들을 따라 배우게 만들으로써 결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 외에 북한은 군사 우위 혹은 군사 중시 경향을 반영하듯 90년대 들어 '軍民일치운동' 등을 전사회에 확산시켜나갈 것을 호소하고 있다.

본고는 그간 북한의 반세기를 이끌어온 각종 대중 운동을 정리해 본 뒤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의 탄생 배경과 과거 천리마운동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할 것이다. 또한 그 외 전개되고 있는 군사 분야의 대중 운동을 고찰해보는 한편, 대중 운동 과정에서 탄생한 영웅들의 면면을 검토해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북한 대중 운동의 반세기 역사

북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대중 운동은 각

분야에서 추진하는 노력 동원 사업으로 일컬어진다. 다른 한편에서는 노력 경쟁을 통해 분야별 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주민들을 독려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북한은 노력 동원에 대해 '인민들의 양양된 열의를 조직화하고 그들의 노력을 사회적 운동으로 동원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지난 1998년 수정·보충한 사회주의헌법 제14조는 "국가는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 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북한에서 대중 운동이 반세기의 역사와 호흡을 같이해온 만큼 그 출발점도 해방 직후인 4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에서 대중 운동이 처음 등장한 것은 해방 이후 문맹자의 일소를 목표로 한 '문맹퇴치운동'과 일제 유습·봉건 잔재 타파를 위해 사상 개조를 부르짖은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이후 정주기관구의 철도 노동자들에 의해 이른바 '애국적 증산운동'으로 발전했고 이 과정에서 황해도 재령군 농민 김재원이 愛國米를 헌납한 것을 계기로 '애국미헌납운동'이라는 새로운 농민 대중 운동을 낳기도 했다.

5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이라는 대중적 혁신 운동이 등장하게 된다. 1956년 말부터 시작된 이들 대중

운동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아래 전개된 최초의 사회주의 노력 경쟁 운동으로서 특히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그 대상을 작업반, 인민반, 공장, 농장, 학교 등으로 구체화해 전개됐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김정일이 권력 핵심에 부상하기 시작한 7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심화 발전 형태로서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고무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기나긴 장정에 오른다.

80년대 북한 사회는 '숨은영웅따라배우기운동'과 '오중흡따라배우기운동'으로 여명을 맞는다. 전자는 노력영웅 칭호 수여자를 본받아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후자는 김일성의 빨치산 부하였던 오중흡(1910~39)을 따라배워 주민들에게 충성심을 발양케 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김된다.

이와 함께 80년대는 북한 3대 제철소의 하나인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근로자들이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에 달려들어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을 들어 '80년대속도창조운동'이 큰 획을 긋기도 했다.

이어서 90년대에 들어서면 증산하고 절약하여 이미 마련된 경제적 토대가 은을 내게 하자는 구호를 앞세운 '증산·절약운동'이 서막을 장식하고 또한 김일성이 자강도 전천군 상업관리소장인 정춘실이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했다는 것을 본받게 하는 '정춘실운동'이 벌어졌다.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북한은 지난해 1월 1일 신년사를 대신하는 당보·군보·청년보 신년 공동 사설에서 체제 재건을 위한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을 제시한 이래 이 운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현재까지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2의 천리마대진군은 특히 사회주의 고수의 사활적 문제라 할 수 있는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999년 7월 23일자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 나아가자” 사설에서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려 해도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려 해도 경제 건설에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 이 운동은 각 부문에서 뚜렷한 업적을 이룩한 공로자들을 내세워 사회주의 경제 질서를 확립한 다음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발상으로 인식된다. 어찌보면 남한의 제2의 건국운동과 비슷한 의식 개혁 운동인 셈이라는 평가도 어울릴 것 같다.

그러나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은 과거 1956년 12월 시작된 천리마운동과는 몇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다. 과거의 천리마운동이 전후 복구 및 사회주의 경제 토대 확립을 위해 시작한 노력 동원 운동이라면, 제2의 천리마대진군은 그들이 말하는 강

성대국을 건설해 ‘주체 혁명의 새 시대’를 펼쳐가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로동신문」은 작년 11월 4일자 사설에서 “우리는 지금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해 준마를 타고 구보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 전후 시기에 천리마운동으로 부강조국 건설의 터전을 닦았다면, 오늘은 제2의 천리마대진군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의 천리마운동의 중심이 주민들의 정치 사상적 개조에 두어졌다면 제2의 천리마대진군은 사상과 경제적 실리를 배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특히 공정의 효율화와 통계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등 경제 전반의 틀을 혁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 선구자대회(1999. 11.3~4)에서 “경제를 종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정을 현대적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반면, 과거의 천리마운동과 제2의 천리마대진군이 맥을 같이 하는 점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영웅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리마운동이 관류하던 50~60년대에는 천리마제강소 노동자 진용원 등이 ‘천리마기수’로 명명되면서 영웅으로 떠올랐고 제2의 천리마대진군에서는 지난해 8월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마라톤 우승자 정성옥 등이 대표적인 영웅으로 꼽힌다.

또한 대중 운동 전개 수단으로서 3대혁명

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도 흡사하다. 북한은 50년대 천리마운동이 사람과의 사업(사상 혁명), 설비 자재와의 사업(기술 혁명), 책과의 사업(문화 혁명)을 중심 과업으로 했다며 이를 3대혁명과 연계시켰다.

제2의 천리마대진군도 마찬가지이다. 「로동신문」은 1999년 8월 5일자 사설에서 '사상 개조 사업과 경제 문화 건설에서의 집단적 혁신 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속도전과 사상전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이야말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대중 운동'이라고 못박고 있다.

게다가 천리마운동의 추진력을 지도자의 영도력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북한은 50년대 후반 '천리마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주객관적 요인은 위대한 수령님(김일성)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천리마운동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의 집중적 표현이며 수령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계신 혁명적 군중로선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을 펼치면서도 북한은 "천리마대진군 속에서 이룩된 전통과 혁명정신을 옹호 고수하고 그 불패의 위력으로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것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확고한 의지이다. ...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김정일 동지에 대한 충효심을 더욱 깊이 간직해야 한다"고 강조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천리마대진군운동은 우선 1999년 4월의 인민경제계획법, 같은 해 10월의 통계법 제정 등 일련의 법제 정비를 통해 사회주의 계획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또한 시기적으로는 제3차 7개년계획(1987~93년) 이후 지금까지 극심한 경제난으로 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당 창건 55주년이 되는 2000년에 어느 정도의 경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각 분야의 영웅들을 내세우는 한편, 선구자 대회를 통해 당원·근로자의 열의와 노동 의욕 고취를 강력하게 불러일으키려 한다는 점과 김일성 사후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해온 당 조직들의 역할 배가를 독려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90년대 군사 중시 사상도 대중 운동 견인

이처럼 급부상 한 제2의 천리마대진군과 함께 최근 북한 사회를 휩쓸고 있는 것은 9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온 군사 분야의 대중 운동이다. 군민 일치 운동을 비롯한 군사 분야의 캠페인은 급격히 악화된 식량난과 핵문제로부터 야기된 긴장 격화, 김일성 사후 위기 의식과 맞물려 진행됐는데, 그 배경에는 김정일의 군사 중시 사상이 자리잡고 있다.

군사 중시 사상은 "정치는 군사에 의하여

담보되고 군사 사업은 정치에 의하여 발전하게 된다”는 정치와 군사의 밀접한 연결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말하듯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무력으로 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군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주의 정치 지도자는 문무를 겸비해야 하며 군사를 틀어쥐어야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로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논리가 투영된 군민일치운동은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시절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강조한 데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은 김일성 시절에는 그다지 큰 빛을 보지 못하다가 김정일이 1991년 12월 군 최고사령관에 취임하면서부터 대중 운동으로 발전하는 전기가 마련됐다.

북한의 매체들은 특히 김정일이 군민 일치가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1998. 4.30)에 실린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장군님(김정일)께서는 군대와 인민간의 혈연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인민군대의 전통적 미풍이며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 조건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유기체의 동맥에는 경화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 사이의 혈연적 관계에서는 그 어떤 자그마한 틈과 불신임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수령님(김일성)의 뜻이고 의지인 동시에 군민 관계에 대한 자신의 철학이며 좌우명이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었다.”

김정일의 군 최고사령관 취임 이듬해인 1992년 3월 ‘군민일치모범시(군·구역) 칭호’가 제정되고 4월 헌법 개정시 “국가는 군대 안에서 군민 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됨으로써 군민 일치는 군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사회적인 대중 운동으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 북한은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군민 일치의 새로운 사상이라며 경제 부문에의 군민 일치 적용을 역설한다. 「로동신문」은 1997년 2월 10일자 정론을 통해 “인민군대의 혁명적 군인 정신으로 살며 싸울 때만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위협과 봉쇄를 혁명적 공세로 맞받아 짓부실 수 있고 경제 건설의 걸린 문제도 풀 수 있다. … 인민군대식의 투쟁 기풍으로 일할 때 과학과 문학 예술 창조 사업에서도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군인들은 영농 지원, 도로 건설 등 대민 지원 활동에 주력하고 주민들은 생필품 지원, 위문 공연 등 군대 지원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군민 결속이 다져져 김정일의 통치 기반 구축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한편, 김일성 사후 체제 붕괴 위험이 노출되고 탈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각급 군 부대에서는 ‘자폭영웅따라배우기운동’, ‘오중흡

동지를따라배우는운동' 등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운동의 목적은 "전쟁의 승패는 무기보다 군인들의 사상에 의해 결정된다"며 전체 군인에게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으로 무장할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

이 가운데 자폭영웅따라배우기운동은 1990년 군사 훈련중 소속 부대원들을 구하기 위해 오발된 수류탄을 온몸으로 막았다는 김광철과 1993년 비행 훈련중 화재가 발생하자 낙하산 탈출을 포기하고 김일성동상과 민가를 피해 추락사했다는 비행사 길영조 등을 자폭영웅으로 규정, 군인들이 이들의 모범을 따라 배울 것을 독려하는 운동이다.

또 오중흡따라배우는운동은 김정일이 1979년에 발기했다는 것으로, 군인들로 하여금 오중흡이 지녔던 수령에 대한 신념화된 충실성의 모범을 거울로 삼아 성실성의 전통을 代를 이어 계승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중 운동 과정에서 탄생한 영웅들

북한이 말하는 영웅이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세운 위훈으로 인해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 혹은 '영웅 칭호(북한 최고의 칭호)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사뭇 다르다.

북한에서 대중 운동의 진화와 영웅의 탄생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북한이 사

회주의체제를 유지해오는 동안 모든 주민들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체제를 위해 헌신하는 영웅이 되도록 유도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웅의 양산을 위해 북한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30일 공화국 영웅 칭호를 제정했고 이듬해인 1951년 7월 17일에는 경제, 문화, 건설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공로를 세운 이들에게 수여하는 노력영웅 칭호를 제정했다.

북한은 "영웅은 참된 인간의 전형이다 → 사람들은 예로부터 영웅을 사랑하고 존경했다 → 영웅의 모습은 그 나라의 얼굴이다 → 살아서도 빛나고 죽어서도 영생하는 것이 영웅이다 → 영웅은 죽는 법이 없다 → 우리 사회에서 영웅 칭호를 공민의 최고 영예라고 말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 영웅이 많은 나라는 강하고 흥하는 법이다"는 단계 논리로 영웅의 탄생을 유도한다.

영웅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50년대 초반에는 '전쟁영웅'들이 많이 나타났다. 한국전쟁 당시 동부전선 1211고지를 사수했다는 이수복, 351고지 전투에서 위훈을 세웠다는 김인택 등이 바로 그들이며, 특히 90년대를 관통하고 있는 김정일의 군사 중시 기풍때문에 최근 들어 각광을 받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까지는 천리마운동 과정에서 앞장서 나간 사람을 의미하는 '천리마기수'들이 영웅으로 등장했다. 강선

제강소(현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용광로직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생산 혁신을 이뤄냈다는 진응원, 평양제사공장 縑絲工이면서 기능급수를 최대한 높이고 인간 교양 개조에 공헌했다는 길확실 등이 대표적이다.

70년대에는 3대혁명운동의 여파로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영웅이 많이 탄생됐는데, 각각 과학원 식물학연구소 연구사와 농업과학원 벼연구소 연구사로 재직하면서 유지 작물 확대와 우량 품종 개발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백설희와 김상련 등이 꼽힌다.

80년대에 접어들면 충성 운동의 영향에 따라 항일 투쟁 이전인 초기 공산주의 활동 당시 김일성에게 '한별'이라는 이름을 달아 주고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자로 떠받들었다는 김 혁, 차광수가 영웅으로 새롭게 재부상했다.

90년대에는 앞서 지적했듯이 김광철을 비롯한 자폭영웅들과 주민 생활 향상과 자력갱생에 공헌한 자강도 전천군 상업관리소장 정춘실 같은 인물이 영웅으로 떠올랐다.

특히 제2의 천리마대진군이 한창인 요즘 북한은 분야별로 김정일이 키웠다는 6 명의 영웅들을 내세워 주민들의 노력 배가를 다그치고 있다. 먼저 체육계에서는 '마라톤여왕'이라고 칭송받는 정성옥이다.

1996년 미국 애틀랜타올림픽에서는 2:35:31초의 기록으로 20위에 머물렀으나, 1998년 베이징국제마라톤대회에서 2:30:48초의 기록으로 3위를 차지하고, 지난해 8월

세계육상선수권에서는 2:26:59초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해 영웅 칭호와 체육인 최고의 영예인 '인민체육인' 칭호를 함께 받았다.

농업 분야에서는 지리적으로 2모작이 불가능한 자강도에서 3모작을 성공시켰다는 자강도 장강군읍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박옥희, 전력 공업 분야에서는 북한이 중점을 두고 있는 중소형 발전소를 많이 건설해 전력 문제를 자체로 해결했다는 양강도 대흥단군 중소형발전소건설대 대장 허용구, 석탄 공업 부문에서는 12년간 27년 분의 석탄 생산 계획을 초과 수행했다는 2·8직동청년탄광 채탄5중대 당세포비서 겸 채탄공인 김유봉 등이 영웅으로 제시됐다.

또한 임업 분야에서는 심한 척추 압박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산림 조성 사업에 열성을 보였다는 평양시 강동군 산림경영소 대리노동자구 산림감독원인 이웅찬, 과학 연구 부문에서는 김일성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도 탄전에 자원해 극소형 전자계산기에 사용되는 재료를 연구하는 등 성과를 냈다는 과학원 유색금속연구소 연구사 현영라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이들 6 명을 포함한 각계의 영웅을 제2의 천리마대진군 선구자대회가 열린 시기에 맞춰 각종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소개한 뒤, 이들의 경험을 생활에 구현하여 실제로 효과를 내게 하는 '실효 연단' 코너를 마련해 전체 주민의 따라 배우기를 독려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외에 증산과 생활 문화 개선 사업에서 다른 道에 비해 앞서 나가고 있는 자강도의 모범 사례를 널리 소개함으로써 도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이를 통해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성공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맺음말

북한의 역사와 함께 해온 대중 운동은 김정일시대의 본격화와 맞물리면서 경제 부문에서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의 강화로 방향을 잡았다. 또한 북한체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군부 쪽에서는 군민일치운동과 자폭영웅따라배우기운동으로 대표되는 충성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명령적 계획경제시스템을 포기하지 않고 사회주의 고수 방침을 계속하는 한 체제 유지를 위한 이같은 대중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 재생산되리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특히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은 발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김정일에 대한 충성, 인간 개조 사업 등 사상 혁명을 통한 생산 정상화 및 인민 경제 계획의 철저한 수행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북한체제의 한계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에 대해 김정일지도체제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내적 자신감'의 토대 위에

서 이제는 침체된 경제 쪽으로 눈을 돌려 주민들로 하여금 생산성 제고에 나서도록 하는 것은 과거의 천리마운동이 그랬던 것처럼 일정한 성과를 내지는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한편, 북한이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 협력을 비롯한 경제 사회적 대남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천리마대진군을 위해 예비 자원을 총동원하겠지만 결국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외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입이 필수적인 데 임가공 분야 등에서 현재 가장 큰 파트너가 되고 있는 남한과의 협력이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그러나 제2의 천리마대진군이 의미하는 경제 부문의 비약적 발전이 실제로는 중공업 부문 활성화에 다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남 협력 확대 전망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 **完**